

# 독일의 연구원인 얀-빌렘: 나는 과학자인데, 신앙인도 될 수 있을까?

학생 시절, 한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: 나는 과학자인데, 신앙인도 될 수 있을까? 저는 얀-빌렘이라고 합니다.

2026-2-8

학생 시절, 한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: 나는 과학자인데, 신앙인도

될 수 있을까? 저는 얀-빌렘이라고 합니다.

대학에서 연구원, 수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.

저는 추상적인 질문들을 던지곤 하는데, 그 질문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.

어릴 때부터 숫자를 좋아했습니다.

부모님으로부터 가톨릭 신앙을 물려받았고 항상 소중히 여겨왔습니다. 부모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을 전해주셨습니다.

하지만 학생 시절,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신앙인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.

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, 그분이 복음서에 나오는 맹인처럼 기도하라고 권하셨습니다.

“주님, 제가 보게 하소서.” 조금 역설적이었지만, 진심으로 하느님께 청하

는 것이었습니다: “주님, 제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소서.”

제 연구는 매우 추상적입니다. 하지만 저는 결혼했고 아이도 있습니다.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많은 문제들을 동반합니다.

저는 아내를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, 우리 결혼 생활을 가능한 한 아름답게 만드는 법을요.

또한 제 딸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육하는 법도요. 딸을 가진 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.

기도할 때 저는 어린 예수도 함께 있다고 상상합니다. 회원이 된 이후 제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. 특별한 순간은 없었습니다.

하지만, 일상 속에서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.

저는 일터에서, 집에서,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신성한 것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.

모든 것을 신앙의 빛으로 바라보는 법을 차츰 익혀가고 있습니다.

---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 
from <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dogilyi-yeonguweonin-yan-bilrem-naneun-gwahagjainde-sinangindo-doelsu-isseulgga/> (2026-2-8)